

광주·전남 월드클래스 강소기업 키운다

글로벌강소기업 200개사 선정...광주·전남 10개 기업 지정 4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사 등에서 맞춤형 패키지 지원

광주·전남지역 10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게 됐다. 향후 4년 동안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인 '2019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국내 200개 기업을 지정,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액 100억~1000억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1000억원,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에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7억원, 평균 직수출액 642만 달러,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 23.7%,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 30.3% 등 글로벌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광주에서는 금형기업인 고려정밀㈜와 자동차 금형기업 ㈜현성오토텍을 비롯, ㈜무진기연, ㈜아이시스, ㈜현성테크노 등 5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남의 경우 재생

타이어 기업인 한영타이어㈜를 포함한 아통기공㈜, 라인호㈜, ㈜삼우에코, 승진전자산업㈜ 등 5개 기업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 중기부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해외마케팅을 4년간 2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 우대선정을 통해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지역별로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력양성과 공적개선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업은행을 비롯한 8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총 12개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과 보증한도 확대, 저리자금 지원, 금리 0.5% 인하, 보증료 70% 지원, 송금 환율 우대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들로 마련됐다.

이처럼 지역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서 추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8년간 1043개사가 지정, 그 중 62개사(5.9%)가 평균 매출액 750억원, 수출액 2700만 달러 이상의 월드클래스 기업(매출액 400억~1조 원 등)으로 성장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은 물론, 글로벌 선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지자체와 민간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6.65 (+0.50)	▲ 금리(국고채 3년) 1.77 (+0.01)
▼ 코스닥 762.01 (-0.56)	▲ 환율(USD) 141.50 (+4.60)

금호타이어, 유튜브 '엑스타 TV' 개설



매주 금요일 다양한 정보 제공

금호타이어가 유튜브 채널 '엑스타 TV'를 개설하고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소통 확대에 나섰다.

2010년 국내 업계 최초로 유튜브를 개설했던 금호타이어는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수만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온라인 정보 유통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르면서 기존 공식 채널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전면 재구성을 거쳐 지난 19일 리뉴얼 오픈했다.

엑스타 TV는 금호타이어 광고와 엑스타레이싱팀 영상 콘텐츠 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마다 제공한다.

또 10년 이상 자동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RGB STANCE(한용덕)'가 직접 타이어와 관련된 정보와 점

검 요령, 안전주행을 위한 운전자 팁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블로그·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순히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유용한 자동차 관련 팁이나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제품 관련 기획기사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콘텐츠, 이벤트를 강화하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통해 앞으로 국내외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금호타이어 기술의 우수성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즐겨요"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에 상생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농협광주유통센터는 22일 광주·전남지역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 1층 매장에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165㎡ 규모로 지역내 중·소농 등 120여개 농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능가는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전남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인 광주지역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우수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명하 지사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만나는 착한 장터"라며 "농가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광호 광주세관장, 수출초보기업 현장방문 실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아 방문 관세행정 전반에 컨설팅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사진 가운데)은 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 소재한 ㈜인아를 방문, 수출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아(대표이사 백희중)는 프레스 정밀금형, 가전제품 등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으로, 2015년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광주공통브랜드로 참여하고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다.

세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 초보 기업으로부터 수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FTA 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기업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해 수출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1대1 현장밀착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통계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수출초보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천연화장품 메종, 베트남에서 날개 펴다

광주TP 한-베 뷰티산업 상담회 크레아셀과 500만 달러 수출계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한-베트남 뷰티산업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광주지역 기업 ㈜메종이 현지 기업 크레아셀과 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고 22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시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 ㈜메종은 창업 2년 만에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미백크림과 마스크팩 등 천연화장품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베트남 호치민에 소재한 크레아셀은 바이오 신물질 연구개발과 건강식품·화장

품 등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의 바이오·뷰티산업 기술이전과 코스메슈티컬 전문브랜드 '닥터메종'의 베트남 총판을 획득했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기업들과 호치민 기업들의 기술교류와 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오·뷰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게임지원센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5일 나주 미디어지원센터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2019년 게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올해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추진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 ▲게임 제작지원 ▲게임 시장진출 지원 3개 부문 총 10개 단위사업에 2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남지역 게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게임기업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 등 게임 관련 인프라를 무상으로

대여해 기업들의 게임제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 엔지니어·게임 품질전문가(QA)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게임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에서 개발한 게임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게임 제작지원은 사업기간 내 내용화 서비스가 가능한 시장진출 게임과 전남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모티브로 한 지역활용형 게임,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하는 플랫폼 다변화 게임 등 3가지 사업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전남에 소재하거나 전남으로 본사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게임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